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4)(2/25/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5 장 마음의 건고한 평화와 참된 영적 진보는 어디에 있는가, 4-6 절

고후 13:5 -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

막 3:35 -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엡 4:15 -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갈 5:22-23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4.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게 되거나, 마음과 육신에 그 어떤 고통도 겪지 않게 되는 것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참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역경도 겪지 않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또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큰 헌신과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다고 해서, 네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네가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네가 미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들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온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5. <제자> 주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6. <그리스도> 큰 일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현세의 일에서든 영원한 일에서든, 네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는 가운데, 형통할 때나 역경 속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면서, 늘 변함없이 감사한다면, 너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망 안에서 담대하여 오래 참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내적인 위로가 사라졌을 때에도, 네 마음은 한층 더 큰 역경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마치 너는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겪어서는 안 되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게 행한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참된 바른 평화의 길로 행하는 것이어서, 장차 나의 얼굴을 기쁨으로 다시 보게 될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자신을 온전히 멸시하는 데 이르게 된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네게 허용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크고 풍성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알라.

**말씀과 해설:**

마음의 평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영성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번민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 있거나,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그 이유는, 때때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감지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일 없이 평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둔한 우리는 나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나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다윗이 밧세바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바라던 것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던 다윗은 어느 순간 영성에 문제가 생겼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분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상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며 분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신하면 안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도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사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성공, 성취, 번영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표징이며, 결과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기록한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적이며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은 악인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잠 24:1 -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악인을 멀리하며 그들의 악을 본받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악인들도 육신적으로 형통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속적 성공과 번영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공을 항상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가난, 사고, 질병, 환난 역시 그들의 영적 성공과 실패, 의로움과 죄악됨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를 유지하느냐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점검하며 성숙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권면했다. **고후 13:5 -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Examine, Test)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은 아울러 엡 5:10 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했다. 이 구절에서 “**시험하여**”라는 말씀은 ‘검증하다’, ‘분별하다’, ‘알기 위해 노력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성도는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분별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깊은 기도, 특히 성령 안에서의 듣는 기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과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막 3:35 -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엡 4:15 -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갈 5:22-23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분별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자.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잊지 말자.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주 안에서 매순간 나를 성찰하고 분별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 나가게 하옵소서.
2.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권영봉, 이창배, 전만규)의 사역지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3.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교회 위에 크신 사랑과 은총을 부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행사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